

서울시 에이즈 현황 및 관리대책

올 3월까지 총 HIV감염인 1,069명

:: **홍귀순** 서울특별시 질병관리팀장

70년대 말에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 이래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문제로 떠오른 HIV/AIDS는 2003년 한 해 동안 500만 명이 새로 발생하여 현재 4,000만 명이 감염인인 채 살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1일 1.5명꼴로 발생하여 2004년 3월말 현재 2,679명(서울시 1,069명)이 발생하고 있으나, 감염인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이즈에 대한 업무기피가 담당자의 수시 교체로 이어져 전문성 결여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시에서는 에이즈 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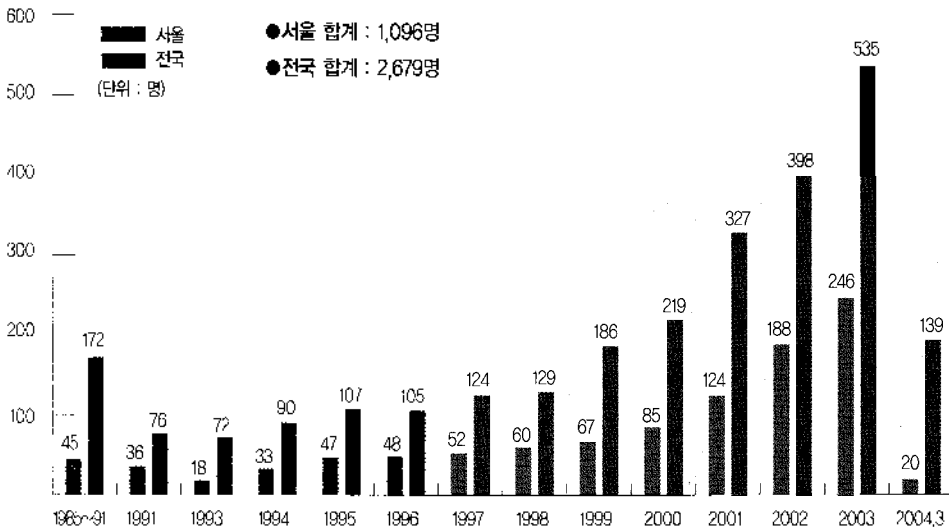
서울시 HIV/AIDS 현황

» 감염경로

(단위 : 명)

구분	계	성 접촉				수혈		수직 감염	역학 조사중	기타
		소 계	국내이성	국외이성	동성애	혈액제제	약물			
서울	1,069	896	429	88	379	10	-	2	19	142
전국	2,679	2,164	1,011	396	757	44	2	5	223	241

» 연도별 감염인 현황



» 에이즈 검진자 수

(단위 : 명)

구분	'87~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검진자	257,588	189,310	254,117	302,200	352,074	374,635	528,686	484,926	501,491	241,430	163,919	153,899	129,833	100,768	94,814	19,620
양성자	15	24	14	33	28	29	49	39	53	57	67	85	124	188	1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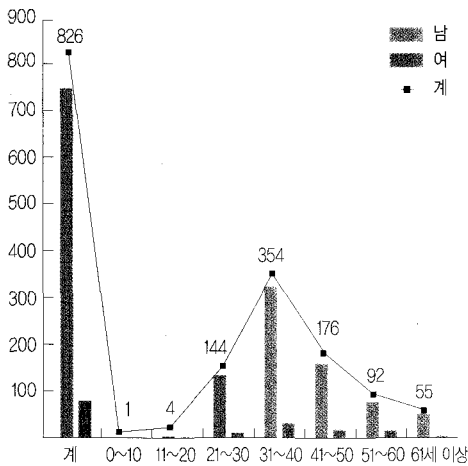
» 학생 감염인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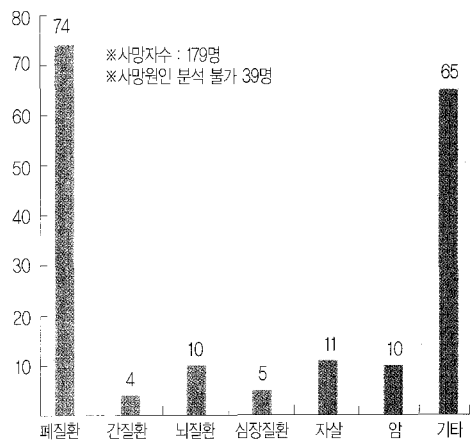
총 계	국 내			국 외			수업	수치 감염	기타	비 고
	소개	동성	이성	소개	동성	이성				
43	32	20	12	6	4	2	2	1	2	현재학생 30, 직장인 8, 무직 5

※발견 당시 대학생 30, 대학원생 2, 교교생 이하 6, 기타 5명

» 연령별 현황



» 사망원인별 현황



♥ HIV 감염임산부의 출산아기 역학사항

총 출산아 11명 중 8명(1명 사망, 2명 전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건강한 편으로 이중 6명은 검사결과 음성관정을 받았고, 2명은 아직 검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 AIDS 부부감염인 현황

총 감염 52명(26쌍)

♥ 2004년도 HIV/AIDS 예산

16억6천2백만원

실태와 문제점

♥ 감염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검진대상자는 줄었지만 희망 검사자와 병원에 내원하여 환자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종적을 감춰버리는가 하면 폐인이 되어 사망 직전에 행여자로 발견되기도 하며, 담당자를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감염인도 있어 담당자의 업무기피와 함께 담당자 교체로 이어져, 전문성의

결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감염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53%가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감염인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경제적으로 열악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정을 스스로 기피하고 있으며, 감염인이나 말기환자에 대한 요양시설도 전무한 상태이다.

▼ **감염인의 연령이 주로 생산연령층인 21세~50세 사이(81.6%)이며, 대부분 성접촉으로 감염(98.6%)되었고, 그중 동성애자가 42.3%이며, 학생감염인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인 콘돔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각종 신체검사나 건강검진시 검사의무조항이 없으나 많은 사람들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HIV검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감염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익명검사제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시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폐쇄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접근하기는 부처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학생감염인이 전 감염인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 접촉감염으로 이중 63.1%가 동성애자이다.

세부추진사업

■ **에이즈 예방·홍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에 위탁하여 전 시민이 에이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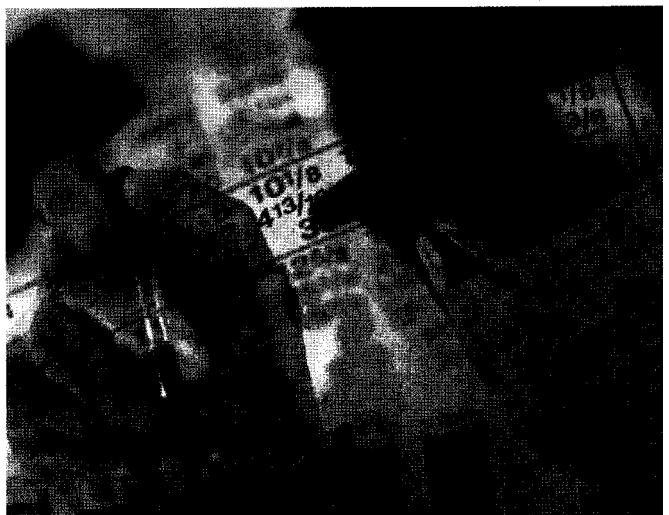
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이즈 퇴치연맹에서는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강연회), 대중매체 홍보사업(시내버스 LCD 광고), 매춘지역 여성에 대한 콘돔사용 홍보, 기타 에이즈페널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에서는 보건·의료인 교육, 에이즈 전문가 과정교육, 전문상담실 운영, 보건소 에이즈 담당공무원 워킹, 서울시 및 구청 공무원과 함께 국제 연수, 고위험지역 IT캠페인(SMS문자메시지 10만명, 배너광고, 메일링 등)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감염인 발견**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으로 감염자를 조기발견하여 전파를 방지하고, 무료·익명검사 활성화하여 신분노출우려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금년하반기에는 위탁된 두 단계에서도 무료익명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서울의 HIV로 사망한 사람 중 폐질환이 많으므로 보건소 결핵등록자 전원과 발견된 HIV감염인에 대해서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숙자, 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해서도 검진을 하고 있다.



■ □ 감염인 관리

감염후 나타나는 사회적, 심리적 두려움에 대한 안정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타인으로서의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염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발견통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동시 상담으로 전파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면담장소는 보안이 가능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상담시에는 최대한 감염자의 감정상태를 수용하여 실시하며, 감염전파 방지교육과 연계병원의 담당의사 확보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HIV 감염인에 대해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질병 발생시 즉시 진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입원필요시 연계진료기관에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입원 후 환자상태 파악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 곤란시 병원과 협의하여 후납조치한다. 임신의 경우에는 연계진료기관에서 정기적 검진을 받게 하고 출산할 병원과 분만담당의사를 미리 결정한다.

미혼감염인은 결혼 전 상대자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토록 권유하고, 기혼감염인은 배우자에게 가능한 즉시 감염사실 통보토록 권유하고, 감염사실 미 통보시 보건소장이 배우자에게 통보하여 배우자검진을 실시하고 불응시 법에 의해 처벌됨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또한 혈우병이나 수직감염인 미성년감염자는 감수성을 감안 부모에게 통보하여 관리한다. 징병검시통지서를 받은 감염인은 관할 보건소(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병검사 당일 장병검사 군의관(판정관)에게 제출하면 징집이 면제된다.

■ □ 치료제 투약

발병억제 및 지연으로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을 주고, 정부의 기시적 감염자관리 및 미발견감염자



의 발견 촉진으로 급속전파를 최대한 방지코자 치료제를 투약한다.

투약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하며, 정기면역검사 결과 면역기능 저하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에이즈 진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의에 의한 투약 및 진료를 실시하고, 에이즈 관련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는 동네 병·의원과 연계한다.

매년 HIV감염인과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최근 환자상태에서 발견되는 감염인이 많아 환자 자신의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에 에이즈 전문단체에서는 일반 국민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인은 이제까지의 생활태를 변화하여 더 이상의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봉사자세를 갖고 세상을 새롭게 받아들이며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일반국민은 올바른 성윤리에 입각한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으로 무지로 인해 불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위험 행위 후에는 보건소 등을 찾아 무료 익명검사를 받아 관리하고, 감염인도 피해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담당공무원은 감염인에 대한 배려와 정확한 치료정보로 감염인이 담당자를 신뢰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